

# 로버트 C. 뉴먼 박사, 공관복음서, 강의 5, 책의 특징

© 2024 로버트 뉴먼과 테드 힐데브란트

우리는 여기서 공관복음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예수인 1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2단원, 신약성서의 유대적 배경; 단원 3, 주석 입문, 내러티브 장르에 관한 것.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는 4단원, 공관복음의 저자와 날짜에 대해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관복음의 저자와 날짜를 다루었지만 공관복음의 특징에 관한 꽤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픽업하고 싶은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공관복음의 특징,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마태의 특징, 마가의 특징, 누가의 특징. 그럼 마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인 마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답은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네 권의 책에서 그의 이름이 일곱 번 언급되었지만 실제로는 두 경우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사도 목록입니다.

사도 목록에서 그가 마가복음 2:14에서 알패오의 레위라고 불린 것처럼 그는 알패오의 아들이자 작은 야고보의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태복음 10:3, 마가복음 3:18, 누가복음 6:15, 사도행전 1:13에 알패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9:9, 마가복음 2:14, 누가복음 5:27,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며, 개종한 후에는 오랜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렇다면 신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의 사도 목록은 공공과 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목록입니다. 다른 세 가지 목록인 마가복음 3:18, 누가복음 6:15, 사도행전 1:13에는 그 사람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목록에서 사도들은 때때로 약간 다른 순서로 표시되지만 항상 4명씩 세 그룹으로 그룹화되며 그룹 간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보이는 방식입니다. 마태는 항상 제7제자나 제8제자로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즉,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 또는 마지막에서 다음 그룹에 속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 가지 전통 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래 청중, 즉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적 강조는 확실히 유대인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의 칭호보다는 예수의 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적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식된 것은 단지 메시아, 즉 기름부음받은 자의 그리스어 번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관습을 설명하기보다는 유대인 관습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의 주요 독자가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임을 다시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2절에는 손을 씻는 것에 관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마가는 서너 구절의 설명을 제공하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복음서 기자는 그들의 경문을 넓히고 술을 길게 한다고 말합니다. NASB에서도 20~21세기 이방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괄호를 추가하고, 술을 길게 하고, 옷의 괄호를 붙이고, 괄호 안을 붙인다. 일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경문과 긴 술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허리띠 등에 술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정통 유대인 집단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27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러한 환상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특히 축제 직전에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만져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덤을 하얗게 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년 중 언젠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제 직전에 무덤을 하얗게 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과 구조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므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로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작가들보다 더 많은 예언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태복음도 등장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역사 사이에 미묘한 유사점을 그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나니 이는 호세아에서 마태가 말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며 예수와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유혹에서 성경을 사용하신 것과 사탄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모두 이스라엘과 광야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 매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아내려는 또 다른 방법은 구조에 대한 내부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작가들과 작업할 때, 그리고 다른 작가들과도 작업할 때, 우리는 작가가 우리에게 개요를 제공했다면 자신의 자료의 개요를 어떻게 설명했을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의

추측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책의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마태복음에는 전환 구절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가능한 구절이 있습니다. 둘 다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족보와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것이 무리를 향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비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전환하십시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개인적인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의 시작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전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준비 자료는 예수님의 공개적인 복음 선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뒷부분에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설교가 있는데, 누가와 마가복음보다 더 많고 더 길다.

마가복음은 감람산 설교를 제외하고는 매우 짧은 자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통 다섯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odet의 신약성경 소개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비슷한 공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마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다음 그 시점에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7장을 인용하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끝내셨을 때 일어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 11:1은 전환 구절을 형성합니다. 13장에는 왕국의 비유가 있고, 13:53은 그러한 전환 구절을 형성합니다.

18장에는 교회 규율 자료와 제자들에게 한 그의 담화가 있고, 19장 1절에는 전환 구절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는 올리브 산 담화가 있고, 26장 1절은 그것에 대한 마무리 공식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마태가 그의 복음을 오경을 중심으로 모델링했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오경의 다섯 권과 동등한 다섯 가지 담화가 있습니다.

글쎄요, 산상수훈은 아마도 출애굽기에 꽤 잘 들어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세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방향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섯 가지 담론이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인지는 즉시 명백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추가 유사점도 참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세대에 관한 책에 해당하므로 담화 개념을 버리면 마태복음이 일종의 창세기 부분과 준비로 시작하고 그 다음 산상 수훈이 출애굽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뭔가,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너무 잘 가지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유혹은 아마도 방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방황 전과 같은 율법을 주는 시내산의 반대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글쎄, 우리는 거기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단지 다섯 개가 아닌 두 개의 다른 담화가 있으므로 약간의 순환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고,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3장, 24장, 25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종말론적 자료에서 25장으로

들어가면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담론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담론이므로 다시 한 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마태의 기술은 예수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예수의 설교에 대한 주제적인 샘플을 제공하고 이러한 샘플을 오경에 맞추려는 시도는 다소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상당히 큰 것을 사용합니다. Mark는 매우 짧은 조각을 사용하고 Luke는 원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조각을 사용합니다. 나는 그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자신의 자료를 연대순으로 옮기고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수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의 설교는 주제별로 이루어지며 그의 기적은 주로 8장과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사건 순서가 마가나 누가의 사건 순서와 몇 군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복음서는 공적 사역, 그다음 개인 사역, 그리고 승리의 입성과 죽음과 부활 등의 의미에서 동일한 사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들 사이의 연대적 자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즉,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다른 순서로 발생했다고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두 복음서에 나타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여러분의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는 단 한 번의 성전 정결만이 있었다고 자주 주장해 왔지만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관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사역의 다른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물론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가 읽은 것 중 일부는 다시 수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흔히 누가복음의 평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는 아주 강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향은 아마도 동일한 설교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회 설교자는 원하신다면 우리 순회 설교자들처럼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형태가 아니라 웨슬리와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비슷한 자료를 다른 곳에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마다 문학적 절차가 다릅니다.

서양의 학술 논문에서는 인용이 특정한 정확성과 스타일을 따라야 하지만, 신문 기사의 요구 사항은 형식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 저자마다 다소 다르게 들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결코 일어나지 않은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긴 연설이나 긴 이야기를 요약할 때 작가는 담론의 핵심 문장을 사용하거나, 행동을 단순화하거나, 자신의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접근 방식은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한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더 길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내가 읽은 내용은 복음서가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말해 주지만 타임머신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특정 사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정확히 알아낼 수 없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나병환자 치유가 실제로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두 사건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특징과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문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꽤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 하나는 그것이 성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라멘트 중 일부는 다른 복음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성경의 증거문들을 모아놓은 증언집이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글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님 자신의 설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분은 그곳의 두 제자들에게 구약성서의 말씀을 설명하셨고, 몇 시간 후에 다락방에서 더 많은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제가 제안하는 바는 마태복음과 같은 성취 언급과 바울과 베드로의 다양한 구약성경 구절의 인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구약성서의 예언이 실제로 메시아 등을 가리키도록 고안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 중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적인 문구는 천국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30번 이상 나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마가와 누가는 결코 천국을 가지지 않았고, 마태는 거의 항상 천국을 가지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실제로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랍비 문헌의 일부를 알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랍비 자료에서 우리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대체품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물 중 하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다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유대인인 마태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천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일부 다른 자료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특징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이 이방인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다양한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언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둘 다 탄생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마태의 특징이 있고, 일부는 누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마태는 박사들이 오는 것,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것,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등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마태는 우리에게 요셉의 관점을 제시하고,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이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출생 이야기의 차이점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서의 경우, 원하신다면 마태복음에는 교회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가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마가, 요한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교회 안에 베드로가 있고,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 권징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권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절대적인 구별을 만들고, 마태복음이 이 세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유대 복음으로 보는 다양한 세대주의에 대해 일종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보적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낡거나 고전적인

세대주의입니다. 에클레시아 ,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에클레시아는 70인역의 용어이다.

이는 회종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종종 히브리 회종의 부름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에클레시아 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 그렇다면 그것은 구약의 에클레시아 와 구별되어야 하는가 ?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명령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소 의심스러운 본문이지만 누가, 사도행전, 요한도 각각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를 반복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에 가거나 예수님이 삼위일체 공식을 통해 여러 시대에 걸쳐 제자들과 함께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예수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오래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기록에서 가라고 명령한 것과 사도행전에서 일찍이 꺼렸던 사도행전과의 충돌을 인지했기 때문에 현재 마태복음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초기 세례 등등.

아마도 둘 다 당신이 세례식에 사용되는 정확한 공식이나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제안하기 위해 구절을 과도하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참이라면 이런 종류의 것들은 모두 심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그분의 오심과 부활은 확실히 세상을 뒤흔드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시편 22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확실히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아버지와 그분의 이름을 공유하십니다. 내 생각에 사도행전의 문제는 주로 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제자들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문구를 의식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한 지시로 취함으로써 우리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잘못 읽었을 것입니다. 좋아, 나는 여기에 Matthew의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읽기에 아주 잘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숫자를 생략하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대부분에 걸쳐 이어지는 족보로 시작하여 2장의 끝 부분에 이르는 탄생과 유아기, 3장 전체와 4장 전체를 거쳐 사역을 위한 준비,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은 4장 중반부터 18장 끝까지로 나누어 공적 사역, 4장 중반부터 13장 초반, 그리고 약 3장 정도의 제한된 사역, 그리고 약 3장 정도의 개인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이어지며, 19-1부터 21-1까지 약 2장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그게 5장 정도 되고, 그다음 배반과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2장, 그 다음에는 부활 후의 나타나심이 1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사역만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파리안 사역을 하고 요한은 유대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부활까지의 마지막 주가 28장으로 구성된 책 중 8장을 차지합니다.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매우 큰 부분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마가의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튜에게 했던 것처럼 존 마가라는 남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는 실제로 신약성경에 10~11번 언급되는데, 마태는 사도이고 마가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마태보다 더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에서 6번 언급되어 우리가 그의 자료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바울 서신에서는 3번,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서 각각 한 번씩 언급됩니다. 베드로전서에 한 번, 마가, 내 아들 등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마가복음 14장, 51장, 52장에서 체포 사건으로 시트를 잃어버린 일이 10번, 11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삶을 추적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에 충분한 자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나는 KJV에 조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어는 실제로 조카인 *onepsios* 와 동족 이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단어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촌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어 계보 용어로 말하면 말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으며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그녀가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신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모릅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52절입니다. 이는 추측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이 마리아의 집에서 열릴 것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마리아가 집을 소유했고 나중에 신자들이 그 집을 사용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마리아의 집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폭도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집으로 옵니다.

결국, 유다는 그 시점 이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히 알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도할 것입니다. 마크가 깨어난다. 집에 도착하는 폭도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서 폭도들을 따라가며 침대 시트에 싸인 채 겿세마네까지 가며 덩불 속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거의 붙잡힐 뻔했습니다. 추측이지만, 작은 그림이군요. 마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박해 중에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행 12:12 ).

우리는 요세푸스에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망한 시기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기 144년경 또는 그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행 12-25장).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합니다( 행 13:5). 그들의 보조자인 후 페리타스( Huperi tas)는 원래 삼단노선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노 젓는 사람을 의미했지만, 보조자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점.

마가는 아마도 바울이나 바나바에 비해 세상에서 훈련을 거의 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집과 음식을 돌보는 일 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들이 키프로스에서 소아시아로 갈 때 그들을 버립니다. 아마도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인가 뭐 그런 이유로 키프로스에 가본 적이 있었고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13을 참조하십시오. 그에 대한 추정 날짜는 아마도 서기 47-48년일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바울은 그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Mark가 왜 그들을 버렸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의 초기 부분에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언급되지만, 구브로에서 세르기오 바울로가 개종하고 마술사 엘루모가 바울, 곧 하나님에 의해 눈이 먼 사건 이후에 분명히 언급됩니다.

그다음에는 바울이 먼저 언급됩니다. 마크가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른다.

나는 여기서 추측하고 있었다. 원한다면 재건도 가능합니다. 둘째, 소아시아로 갈 가능성은 변경된 계획이었고 마가는 그렇게 오래 가고 싶지 않았습다.

셋째, 마가는 앞으로 시작될 이방인의 공격적인 복음화를 반대했습니다. 아니면 위험을 두려워하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향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다시 추측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어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고, 마가와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머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서기 50년경입니다.

글쎄요, 당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후반부까지 더 이상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약 10년 후인 서기 61-63년에 마가는 바울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4, 1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마가는 분명히 바울에 의해 선교사로 파송되고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마가는 에베소 근처에 있으며 바울에게 유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11은 대략 AD 64-68년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올 때 그를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 절에서 이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는 디모데후서의 언급보다 앞선 것일 수 있다. 우리는 모른다.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로마의 박해가 분명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64년 이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베드로는 이 박해에 대해 아시아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교회들에게도 이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거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바벨론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으며 문안합니다.

아마도 영적인 의미에서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마가의 아버지이고 마리아가 베드로의 아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어디에 있나요? 이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썄요, 바빌론 도시가 있던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전히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문자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의 동방 랍비 문학 모임의 이름으로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현대 카이로 근처에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붙었는지의 역사는 모르겠지만, 그 곳에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로마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확실히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글썄,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강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것이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고, 피터가 편지가 도착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을 쫓아내기 위해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에 의해 학대당하는 집단이 정부를 상대하는 역사에서 그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나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그곳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인 마크에게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경전 자료를 통해 마태에 대해 아는 것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Mark의 청중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의 청중은 이방인이고 아마도 로마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아람어 문구는 일반적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아람어를 알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는 일이 설명됩니다. 어떤 유대인에게도 그런 일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팔레스타인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비유대인 청중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전통과 아마도 라틴 사상을 통해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로마인이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라틴어 용어를 사용하지만 원하는 경우 그리스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여러 라틴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퍼걸러(pergola)가 있는데, 이는 편모로 채찍질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라틴어 편모에서 영어로 빌려온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11장의 다른 두 복음서에도 나타나므로 로마인들이 기원전 63년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 중 일부가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50년 또는 100년 동안 점령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원할 경우 현지 언어에서 여러 용어가 일반화됩니다. 좀 더

독특한 것은 백부장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5장에서 라틴 백부장으로부터 세 번 나오는데, 영어로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 누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 등가 핵톤 100명 이상의 리더 또는 통치자이므로 이는 군대에서 해당 수준의 장교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청중을 추측할 때 그런 몇 가지 라틴주의에만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보다 마가의 목표를 추론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베드로의 전통을 보존할 의도가 있다거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의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첫 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의 목적을 잘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네 복음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구별되는 목표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이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점에서 마가의 목표입니다. 누가 메시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글쎄, 아마도 일부 주석가들이 제안한 것처럼 마가는 어쨌든 그리스인과 비교하여 특히 로마인 사고방식을 겨냥한 것이며, 물론 당신은 그들을 히브리인, 시리아인, 이집트인 및 그와 유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로마인들은 실용적이고, 행동 지향적이며, 조직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베드로 자신도 그러한 실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점에서 그는 로마인들과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마가에 대한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는 로마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마가가 그 내용을 기록해 주기를 바랐던 방향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클레멘트의 전통에 따르면 로마인들 사이에서 그의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마크의 특징이죠. 우리는 저자와 날짜를 논의할 때 앞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마크에는 생생함이 있습니다.

마크는 액션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러티브에 색감과 깊이를 더해주는 그래픽과 그림 같은 디테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000명은 푸른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글썩요, 영국이나 미국 동부나 그와 비슷한 곳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일년 내내 잔디가 녹색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그는 내러티브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역사적 현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역사적 현재가 그리스어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일반적인 제안이었습니다. Mark에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마가는 마태나 누가, 요한보다 키가 작지만 종종 마태나 누가보다 사건을 더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는 때때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시간, 주변에 언급된 군중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단축성은 긴 담화를 생략하고 더 적은 수의 사건을 보고함으로써 얻어집니다.

활동.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복음에 나타난 활동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행동이 강조됩니다.

헬라어 단어 유투스(euthus)는 종종 그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40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Mark의 서사에 성급하고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을 더 강조합니다.

마가는 대개 예수에 관해 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 역사상 가장 긴 설교입니다. 마크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8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에게 고유한 것은 2개뿐입니다. 그럼 그게 특징이군요. 생생함, 디테일, 활동성.

아람 말. 많은 아람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됩니다. 이 아람어 단어 중 일부는 마가에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주신 F인 보아너게스는 천둥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탈리타 금 , 마가복음 5:41, 야이로의 딸인 어린 소녀에게 명령이 일어나라. 에바다 , 7:34, 병어리를 죽이라는 명령이 열리느니라.

바르티매오는 소경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는 티매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마가는 심지어 아람어 이름인 바르티매오(Bartimaeus)를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청중이 아람어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아바(Abba), 14시 36분,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아람어 단어가 있습니다. 코르반(7:11), 성전에 바치는 예물.

마가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지만 마태복음(27:6)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 골고다, 15:22, 해골이 있는 곳.

마태와 요한 모두 이것을 사용하고 세 사람 모두 이것을 번역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수박다니 15:3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태는 마가처럼 그것을 사용하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Rabbi Rabboni는 마가복음에서 4번, 마태복음에서 4번, 요한복음에서 9번을 여러 번 사용했지만 한 번만 번역했고 요한이 번역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생생함을 위해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나 그와 비슷한 것을 회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예수께서 아람어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수로보니게 여인 및 빌라도와 나눈 대화는 그가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자, 이제 Mark의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보다 장별로 상당히 짧은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뿐입니다. 마가복음 사역을 위한 준비는 1장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사역은 1장 중반을 시작으로 9장 끝까지 이어진다. 공개, 제한, 비공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한 장, 즉 10장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주는 세 장과 약 10절, 11:1, 14:10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배반, 재판, 십자가형은 두 장도 채 안 되는 두 장만 차지하고 부활은 한 장, 그리고 물론 마가복음 마지막 12절의 질문과 함께 요한복음의 마지막 12절만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자료.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Luke에게도 같은 일을 해보세요. 루크의 특징.

의사 루크. 누가는 신약성서에서 세 번만 이름이 언급됩니다. 골로새서 4:14, 빌레몬서 24장, 디모데후서 4:11.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 중에서 누가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박한 참고 자료를 통해 우리는 누가가 의사였으며 그가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골로새서 4:14).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로마에서 끝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증거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간접적이지만 골로새서 4장 10-14절은 바울이

골로새에 갔을 때 친구들로부터 보내는 일련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모두 나와 함께 있는 할레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후자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임이 분명하다.

적어도 두 개는 분명합니다. 그는 전체 그룹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Luke는 후자 그룹에 속합니다.

원한다면 그는 할레받지 않은 그룹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누가의 이름을 세 번 언급할 뿐이고,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작은 구절이라고 부르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자가 그 특정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에 참여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 경우 저자는 행동에 자신을 포함하여 1인칭 복수형으로 글을 씁니다. 이에 대한 본문상 특정 사건이 세 번 있습니다. 행 16:10-17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받은 후, 우리는 여덟 번째 첫 번째 구절을 통해 그곳에서 픽업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그룹은 바울, 실라, 디모데와 저자로 구성됩니다. we의 용법은 10절에서 시작하여 17절에서 끝나는데, 이는 지리적인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행을 좀 하고 있는 중이군요.

이는 저자가 트로아스에서 그 무리에 합류하고 그들을 빌립보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짧은 구절이 다시 시작되어 21장 18절까지 이어져 한 장이 넘습니다. 3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사용법이 좀 더 불분명 하지만, 해당 내용이 빌립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몇 년 전에 빌립보에서 끝났고 지금은

빌립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글썄요, 항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간단한 가설을 취한다면, 바울은 빌립보의 새 교회를 돕기 위해 누가를 데려갔고 몇 년 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는 암시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아마도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져가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누가가 아닌 이상 대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누가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7:1-28:16, 로마로 가는 항해입니다. 이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바울이 거의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가이사랴에서 픽업되어 로마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에 머물렀다가 2년 후 3차 선교 여행과 4차 로마 여행 사이의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를 만났음을 시사합니다. 내 제안은 아마도 그가 이 시간을 자신이 쓴 복음 자료를 연구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가와 데이트를 하러 다시 갔을 때, 그가 복음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다는 것이 내 제안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준비해 두었고, 그것은 동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난파선에서 자신의 사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동쪽보다 서쪽에서 늦게 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추측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는 불확실한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방 본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생하며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전 안디옥에 있습니다.

행전에서 약간 다른 판을 나타낸다고 제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보가 안디옥에 나타났을 때 그가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이 누가 자신의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일기를 사용하고 그 작은 구절을 직접 인용문으로 추출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작은 구절의 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글쎄,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아직도 의사인 루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리스 의사입니다.

누가가 사용한 의학 용어를 고려하면, 누가는 아마도 그리스 의학 전통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의사 두 명은 소위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의사들이 행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가장 유명한 의사 두 명은 기원전 4세기의 히포크라테스와 서기 2세기의 갈레노스입니다. 따라서 누가 시대 이후입니다.

히포크라테스 학교의 저작 중 일부는 오늘날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가 특정 글을 썼는지 항상 알 수 없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과 그 동료들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고대의 다른 많은 의학 방법과 구별되며 관찰과 추론을 통한 진단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의료 운동이 치유의 신인 Aesculapius, 그리스의 Aesculapius, 라틴어의 Aesculapius의 사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진단 방법은 점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학파에서는 관찰을 통해 진단하고 사례 보고서를 주의 깊게 수집하여 추론을 내립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사가 많은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증상은 이렇고, 그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등.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점점 더 많이

얻게 되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 보고서와 증상 및 치료법 목록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최소한 다양한 사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보여주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학교는 간단한 치료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휴식을 취했으며, 마법과 같은 이국적인 것, 찢린 상처에 똥을 바르는 것, 닭 이빨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한 좋은 논의는 SI MacMillan과 그의 손자 David Stern이 쓴 책에서 이러한 질병 중 어느 것도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좋은 토론은 좀 더 이국적인 고대 의학과 대조됩니다. 히포크라테스 학교는 위생 기준이 꽤 높은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루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치료하셨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아마도 사례 보고 형식으로 행한 복음과 행위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자신의 치유 기적에서 준 의학 용어를 여러 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좋다. 알겠습니다. Luke에 관한 다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의 고향인 유세비오와 고대의 제롬은 누가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안디옥이 흩어져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시리아에 있는 곳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신약성서의 서양 본문에 나타나는 변형과 일치합니다. 글쎄요, 누가가 사도행전 11장 20 절에서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유대인보다는 이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레니즘 사람이라는 말을 인종적으로는 그리스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다른 도시에 적합할 것이지만 안디옥에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많은 시리아인이 있었고 헬레니즘도 있었지만 그들은

헬레니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죠? 따라서 11:20의 특정 구절에서 헬라어를 번역해야 할지 헬라어를 번역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헬레니스트들은 확실히 읽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윌리엄 램지(William Ramsey)는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누가가 남겨진 곳이자 나중에 그가 데려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의 동료들을 사용하여 그의 초기 교회 등에서 일하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Ramsey는 또한 누가가 바울의 마케도니아 비전의 원인이었다고 다소 추측적으로 주장합니다.

여기 Ramsey에서 Paul이 Luke를 만났고 그날 밤 그에 대한 꿈을 꾸고 그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등 합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Luke가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는 다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트로아스의 이야기에서,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라면 분명히 그는 트로아스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났거나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찾아 돈이나 그의 선교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도록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누가에 관한 또 다른 추측은 누가가 디도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알렉산더 수터(Alexander Souter)인데, 그는 그 구절에 언급된 형제가 그의 형제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NASU의 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보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직전에 디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복음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Souter는 Titus가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자신이나 그의 형제 야고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Souter는 Luke가

자신에 대한 모든 언급을 최소화하고 그의 형제에 대한 언급도 그에게 관심을 끌 것이라고 분명히 느낀다고 제안합니다. 글썄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그 용어를 영적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꽤 추측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목표는 누가복음에서 명시적인 진술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 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그가 배운 내용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오필루스는 적어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표는 누가복음 1장 1-4절의 프롤로그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의 평소 글보다 훨씬 더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헬라이어 문체를 헬라이어로 기록했습니다.

프롤로그는 다른 프롤로그나 당시의 다른 역사에 비해 압축되어 있지만 그는 한 권의 역사를 쓰고 있고 요세푸스는 7권이나 20권의 역사 또는 그 비슷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롤로그는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며 작업이 수행된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전념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는 용어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서기 60년경에 가능한 한 정확한 예수의 역사를 쓰려고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성공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칭호로 사용된 가장 뛰어난 칭호는 정부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러한 용법은 사도행전과 다른 여러 고대 그리스 책 헌정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레노스의 글과 디오클레토스에게 보낸 초기 기독교 서신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테오필루스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님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신의 이름, 즉 신을 품은 이름이라고 부르는 데오필로입니다. 그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

그냥 우화적인 이름일 뿐이야. 내가 이 책을 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라고 하더군요. .

아마도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우화를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을 품은 이름은 그리스와 유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히브리어와 구약성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권적 이름을 생각할 수 있고, 신약성서에서도 그런 종류의 히브리어 이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약성서에 분명히 실제 이름인 하나님을 지닌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가이우스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대지의 어머니인 가이아와 제우스의 양육을 받는 디오드레베, 데우스 트레페스 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머리 꼭대기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세 명 중 두 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의 이름의 어원만을 근거로 이 사람이 상상 속의 존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복음에 대해 더 넓은 범위의 배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의도한 더 넓은 청중은 아마도 교육받은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꽤 좋은 문체로 글을 쓰고, 물론 그리스어로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의 프롤로그는 그의 목표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우선 우리는 누가가 이 글을 쓸 당시 자신이 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썄, 그게 뭐야? 글썄요, 정식 복음서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두 개 이상의 복음서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John은 확실히 나중이고, 원한다면 Luke는 세 번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아마도 정식 복음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여행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여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내용에 흥미를 느꼈고 베드로나 바울 또는 다른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화들만 듣고는 정보나 연관성이 부족해서 만족스러운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제안입니다. 누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직접 주의 깊게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것들을 연구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마도 누가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는 지상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스가랴의 수태고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안적으로 그는 시작 장소인 팔레스타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겪어보거나 나중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역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물에 대해 현장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세 번째로 목격 증인이자 말씀의 사역자로 지정된 그룹이 전달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는 사도들과 다른 전 시간 봉사자들, 예를 들어 목격 증인이기도 한 70명 정도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두 용어에 대해 하나의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룹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단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세게 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는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치유받은 사람들이나 그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상황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내 제안은 누가와 출생 자료가 마리아의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가도 마리아와 인터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직 50대에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특정 시점에는 아마도 70~80세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누가는 자신이 질서 있고 순차적이며 정확한 기록을 기록했으며 그 기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위와 같은 모든 주장은 자유주의자들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서는 훈련받은 지식인 이방인이 직접 목격자들의 기록을 조사하여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일반적인 방법은 모든 작가들이 자신의 자료 앞에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검증 가능한 곳에서는 누가의 몇 가지 특성이 매우 인상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강조점. 누가복음의 강조점으로 보이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보편주의를 언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니테리언 보편주의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의미입니다. 복음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산층이나 부유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유난히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존경할 만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모두에 대해 강조합니다. 실제로 누가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태도를 강조합니다.

악명 높은 죄인, 나병환자, 사마리아인, 창녀, 세리 등을 향하여. 누가복음은 또한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사회적 관계, 특히 부와 가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누가는 왜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거기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청중의 관심을 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윤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교양 있는 그리스인들도 윤리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정확히 본 것, 즉 로마의 방탕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강압적인 학살 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에게 독특한 자료를 스케치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누가에게 독특한 자료를 스케치합니다. 우선, 그리고 다소 놀랍게도 누가는 마태보다 훨씬 더 이방적인 복음을 담고 있으며 셈족의 찬양 시편을 일부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매우 셈어적인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 셈어적인 것이 가장 적은 복음서입니다. 이 특별한 찬양 시편에 주어진 라틴어 이름은 본문의 첫 번째 단어에서 따왔으며 아마도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것이며 책과 작품 및 그러한 종류의 사물을 명명하는 일종의 히브리적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6-55에 마니피카티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어떻게 영접을 받을까 걱정하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은밀히 계시된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복중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매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틴어로 찬양을 뜻하는 마니피카트(Magnificat)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네딕토(눅 1:68-79), 요한의 탄생 후 스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누가복음 2:14의 영광송, 예수 탄생 시 천사들이 한 말,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술적으로 시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짧지만 시편에 자주 나오는 후렴구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넷째, 느부갓네살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누가복음 2:29-32).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기도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유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 3개 모두 비유가 있고 요한복음도 비유를 언급할 때 파로이미아(paromia)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복음서에는 우리가 이야기 비유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비유가 있는데, 이는 하늘의 의미를 가진 지상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두 가지 수준으로 종종 여기서는 세속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 문구로 매우 적절하게 특징지어집니다.

밀과 가라지는 토지 소유자의 원수가 농작물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복음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상 농업 이야기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적 비유는 예시 비유 또는 패러다임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고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43-45에 가능한 후보가 하나 있고 그에 상응하는 구약성경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은 의미를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부터 종교적인 것까지. 대신에 그들은 작동 중인 영적 진리의 표본을 묘사하며 우리는 문맥에 힌트를 주어 원리를 일반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또는 샘플 우화의 몇 가지 예 선한 사마리아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야기 우화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담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도둑들 사이에 빠지고 사탄의 매복을 당하고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교회는 여관이며 그는 기름과 같은 것, 포도주를 성찬적으로 사용하지만 문맥 자체가 이웃이 되는 것의 의미, 누군가에게 이웃으로서 행동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원칙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샘플 우화의 좋은 예입니다. 원한다면

이웃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 특정 재앙적인 사건의 샘플입니다.

또 다른 예는 나사로의 부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샘플이며, 특정 샘플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을 함께 골라서 그들이 죽으면 부자가 그의 저택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나사로는 개와 상처 등과 함께 밖에 있다가 갑자기 죽음과 함께 나사로가 마치 요한이 주님의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직 부자는 당신이 원한다면 밖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그것을 이야기의 비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은 확실히 그렇게 해서 지옥과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의식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교만 과 겸손의 샘플 입니다 . 어리석은 부자는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약간 다르지만 이기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인 누가복음 14:7-11의 잔치 자리 비유를 같은 범주에 넣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연회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주인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부딪치고 다른 자리를 다 차지할 즈음에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 당신이 원한다면. 같은 맥락의 다른 하나는 잔칫집 주인 누가복음 14:16-24입니다.

당신은 연회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모든 부자가 당신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친구들이 모두 당신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유형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다양한 전통 집단이 다양한 유형의 비유, 다양한 자료를 고안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하느니 모르겠습니다 . 초대 교회의 그러한 고립된 그룹에서 아마도 더 나은 모델은 예수님이 창의적이셨고 다양한 청중을 위해 다양한 유형, 다양한 스타일을 사용하셨다는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자료를 특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강조했습니다. 그 나라의 부와 가난,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 거기에 꽤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에게는 독특한 기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들과 관련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 몸이 허약한 여인을 고치시는 일 등입니다. 그런 다음 다소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파리안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리아(Paria), 요르단 강 동쪽의 유대인 지역, 아마도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했을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마카베오 시대 이후에도 아마도 누가복음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것으로 자료를 마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의 특징 누가복음에는 짧은 4절의 서문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앞부분에 있는 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부분일 것입니다. 출생과 유아기를 좋아한다면 적어도 마태복음의 구조와 위치와 유사하지만 유아기 탄생과 유아기를 포함합니다. 요한의 유아기에도 그리고 준비 부분에는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것은 4장 중반부터 9장의 끝 부분까지 차지하고 큰 부분이 있습니다. ,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10개 장과 파리안 사역 다른 장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더 나은 장이 있고 파리안 사역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신 재판과 십자가형, 그리고 부활에 관한 한 장은 이러한 영역에서 다른 공관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글쎄, 그것은 공관 복음서의 특징에 대한 간략한 둘러보기이고 내 생각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